

# 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22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## 오늘의 핵심

- 1. 비 소식에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호주 재입식 양 지표는 10/16 1,195¢/kg으로 한 주 새 29¢, 경량 양 지표는 1,077¢ (+21¢) 올랐습니다.
- 2. 10/16 주간 호주 양 출하는 186,153두로 32% 늘어 4월 이후 최대였습니다. 그래도 중량 양 지표는 1,119¢/kg(+1%)으로 올랐고, 머튼 지표는 830¢/kg으로 강보합입니다.
- 3. 미국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업계는 최대 6~8년의 수입 제한(세이프가드)을 요구하며 현재 21%인 자국산 점유율을 40%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호주·뉴질랜드는 피해를 부인했고, 피해 판정은 11/13까지 나옵니다.
- 4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)은 10/12 기준 북섬 NZ\$209, 남섬 NZ\$206으로 보합이며, 1년 전보다 17% 높습니다.
- 5. 10/20 NSW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,800두로 6,350두 줄었고, 무역용 양은 1,097~1,222¢/kg, 중량 양은 1,068~1,199¢/kg에 거래됐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/21 67.32위안(-1.5%)으로 내렸습니다.

##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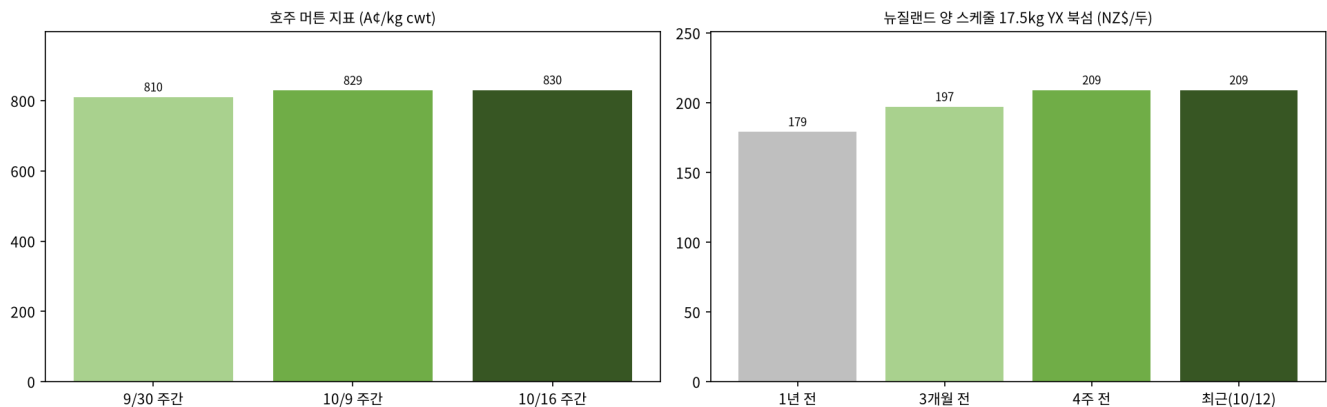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| 국가   |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동                    | 출처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호주   | 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              | 1,153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전주 +5%                | MLA 주간 사항      |
| 호주   | 머튼 지표 (10/16 주간)                     | 830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  | 강보합 (전주 829)          | MLA 주간 사항      |
| 호주   | 중량 양 지표 (10/16 주간)                   | 1,119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전주 +1%                | MLA 주간 사항      |
| 호주   | 재입식 양 지표 (10/16)                     | 1,195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전주 +29¢               | Mecardo        |
| 호주   | 경량 양 지표 (10/16)                      | 1,077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전주 +21¢               | Mecardo        |
| 호주   | 포브스 무역용 / 중량 양 평균 (10/20)            | 1,097~1,222 / 1,068~1,199 A¢/kg cwt | 양 출하 24,800두 (-6,350) | Agora(포브스)     |
| 호주   | 포브스 머튼(메리노 암양 18~24kg) (10/20)       | 913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  | 강세                    | Agora(포브스)     |
| 호주   | 벤디고 도축용 양 주요 등급 (10/19)              | 1,120~1,180 A¢/kg cwt               | 강보합, 양 19,624두 (+774) | Agora(벤디고)     |
| 호주   | 전국 양 출하 (10/16 주간)                   | 186,153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+32%, 4월 이후 최대        | MLA 주간 사항      |
| 호주   | NTLI (9/30 주간, ABARES)               | 1,088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전년 -8%                | ABARES         |
| 호주   | 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                   | 1,226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| MLA 주간 사항      |
| 호주   | 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 | 1,329 A¢/kg cwt                     | -10¢                  | AuctionsPlus   |
| 뉴질랜드 | 양 도체가 상단 (10월 셋째 주)                  | 최고 NZ\$12.20/kg CW                  | 소 도체가 약 NZ\$10/kg     | NZ Herald      |
| 뉴질랜드 | 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12)           | NZ\$209/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주 전 209, 1년 전 179    | interest.co.nz |

| 국가   |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가격                    | 변동                   |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뉴질랜드 | 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            | NZ\$206/두                | 4주 전 205, 1년 전 176   | <a href="http://interest.co.nz">interest.co.nz</a>       |
| 호주   | 와가 20~24kg / 24~26kg 무역용 양 평균 (10/15) | 1,192 / 1,189 A\$/kg cwt | 두당 +5~7달러            | <a href="#">Agora(와가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와가 30kg 이상 대형 양 평균 (10/15)            | 1,082 A\$/kg cwt         | 소폭 강세, 두당 A\$345~405 | <a href="#">Agora(와가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호삼 중량·대형 무역용 양 평균 (10/14)             | 1,185 / 1,180 A\$/kg cwt | 두당 +5~20달러           | <a href="#">Agora(호삼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호삼 수출 등급 양 평균 (10/14)                 | 1,150 A\$/kg cwt         | 두당 A\$318~347        | <a href="#">Agora(호삼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야스 24~26kg 무역용 양 (10/14)              | 1,120~1,150 A\$/kg cwt   | 두당 +6달러              | <a href="#">Agora(SELX 야스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야스 가공용 머튼 (10/14)                     | 800~900 A\$/kg cwt       | 두당 +8~10달러           | <a href="#">Agora(SELX 야스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벤디고 무역·중량 양 (10/12)                   | 1,100~1,180 A\$/kg cwt   | 전체 평균 두당 A\$267(+5)  | <a href="#">Agora(벤디고)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(서호주산)            | A\$11.20/kg HSCW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#">Agora Marketplace</a>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호주   | 양 가격 (MLA, 10/10)                     | 11.53 AUD/kg             | 0.0%                 | <a href="http://agri.markets(MLA)">agri.markets(MLA)</a> |
| 중국   | 양고기 도매 평균 (10/21)                     | 67.32 CNY/kg             | 전일 -1.5%             | <a href="#">농업농촌부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국   | 양고기 도매 주간 평균 (10/9~15)                | 67.11 CNY/kg             | 전주 -1.0%, 전년 +8.1%   | <a href="#">Foodmate(농업농촌부 주간)</a>                       |
| 뉴질랜드 | 대미 양고기 관세 (현행)                        | 13.2%                    | 인상 여부 ITC 심사 중       | <a href="#">Farmers Weekly NZ</a>                        |
| 뉴질랜드 | 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               | 686                      | 12월 681 전망           | <a href="#">Westpac Agri Bites</a>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시황, MLA 주간 시황(10/9), [interest.co.nz](http://interest.co.nz)

## 국가별 주요 뉴스

### 호주

1. Agora에 따르면 10/20 양 시장은 NSW·남호주·태즈메이니아·서호주에서 수요가 강해 대체로 올랐고, 10/21에도 퀸즐랜드·NSW·빅토리아에서 품질 개선과 매수 경쟁으로 램·머튼 가격이 올랐습니다. [Agora Livestock](#)
2. 10/20 포브스 경매는 양 출하가 24,800두(-6,350)로 줄었고, 신규 시즌 양은 두당 5~8달러 올랐습니다. 무역용 양은 1,097~1,222¢/kg, 중량 양은 1,068~1,199¢/kg, 수출용 양은 두당 A\$320~388였고, 머튼도 다시 강세였습니다. [Agora\(포브스\)](#)
3. Agora Livestock의 10/19 양 시장 요약에 따르면 NSW는 출하가 줄고 매수 경쟁이 강해 램·머튼 가격이 올랐고, 빅토리아 벤디고는 공급 상황이 엇갈렸습니다. [Agora Livestock](#)
4. 미국 양 업체는 10/16 ITC 공청회에서 최대 6~8년의 셰이프가드를 요구했습니다. 현재 21%인 미국산 점유율을 30~40%대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은 미국 양고기 시장의 약 80%를 차지하며, 호주 대표단은 미국 가공업체도 수요를 맞추려면 수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([Farmonline](#), [Sheep Central](#))
5. 10/19 벤디고 양 경매는 총 26,554두(-496)였고, 양은 19,624두로 774두 늘었습니다. 도축용 양 주요 등급은 1,120~1,180¢/kg으로 강보합이었고, 18~20kg 교잡종은 1,145¢(+20¢), 재입식용은 1,250¢이었습니다. [Agora\(벤디고\)](#)
6. 그렉 모리아티 주미 호주대사는 10/16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산업의 쇠퇴는 가뭄·양모 수요 감소·보조금 폐지 때문이며 수입은 공급 공백을 메웠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ITC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소비 양고기의 약 80%를 수입하고, 응답한 미국 생산자 49곳 중 31곳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미국은 16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 관세·규제를 검토 중입니다. [SMH](#)
7. Mecardo에 따르면 NSW 최대 100mm 등 주요 산지에 비가 내리며 재입식·비육업체 매수가 늘어, 재입식 양 지표는 1,195¢/kg(+29¢), 경량 양은 1,077¢(+21¢)로 올랐습니다. 무역용 양은 1,154¢로 보합, 메리노 양은 1,061¢(-7¢)입니다. 중국·유럽·영국 수요는 강하지만 미국 수요는 물가 부담으로 약합니다. [Mecardo](#)
8. 10/16 주간 전국 양 출하는 186,153두(+32%)로 4월 이후 가장 많았고, 성양 출하도 69,243두(+16%)로 늘었습니다.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중량 양 지표는 1,119¢/kg(+1%), 머튼 지표는 830¢/kg로 버텼고 재입식 양 지표도 2.5% 올랐습니다. [MLA 주간 사항](#)
9. 10/15 와가는 양 38,600두(+3,600)가 출하됐습니다. 20~24kg 무역용 양은 두당 5~7달러 올라 평균 1,192¢/kg, 24~26kg은 1,189¢/kg이었고 대형 수출용 양도 보합~두당 7달러 강세였습니다. [Agora\(와가\)](#)

### 뉴질랜드

1. 뉴질랜드 양 도체가는 최고 NZ\$12.20/kg, 소는 NZ\$10/kg 안팎으로 강세이며, 목초 생육이 좋아지며 농가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. [NZ Herald](#)
2. 미국 양고기위원회(American Lamb Board)는 수입 양고기 점유율이 커지자 품질·효율 개선 연구에 체크오프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·호주산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치입니다. [RFD-TV](#)
3. ITC 공청회에서 미국 농가·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나와 뉴질랜드산 수입이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. [Farmers Weekly NZ](#)
4. 호주·뉴질랜드 대사는 ITC에 양국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시장을 키우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[Inside U.S. Trade](#)
5. B+LNZ의 케이트 애클랜드 의장이 미국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에 나가,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[NZ Herald](#)
6. 호주·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.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.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7.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(MIA)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,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8.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,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9.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%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
## 참고: 경쟁 공급국

1.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% 줄었습니다(우루과이 양모청). ([World Beef Report](#))

##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, 관세나 쿼터가 확정되면 호주·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며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미국 생산자 다수(49곳 중 31곳)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한 점은 호주·뉴질랜드에 유리한 근거입니다. 그래도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,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,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: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.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,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주간 평균이 전년보다 8% 높아,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,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## 한 줄 요약

호주 동부 양값은 출하 감소와 매수 경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뉴질랜드 도체가격도 높아 산지발 원가 부담이 크므로,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(11/13) 전후 물량 흐름을 지켜보며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.